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박태상(한국 방송통신대 교수)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강좌' 시리즈의 32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에서는 북한의 문화예술에 반영된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일상의 모습들을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통일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촉한 연구용역 결과물로, 반드시 통일부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www.uniedu.go.kr/ebook

이 책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박태상(한국 방송통신대 교수)

C O N T E N T S

I.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 ... 5

- 1. 문예이론과 정책적 목표 6
- 2. 김정일 정권의 주요 선동매체로서의 영화와 소설 13
- 3. 총서 '불멸의 역사'와 '불멸의 향도'의 위상과 역할 16

II. 문화예술에 반영된 북한사회의 모습 ... 23

- 1. 관료제의 병폐와 '숨은 영웅' 찾기 24
- 2. 과학기술적 혁신과 청춘의 강조 28
- 3. 종산을 위한 자력갱생의 의미와 한계 33

III. 문화예술에 나타나는 북한주민의 현실 문제 ...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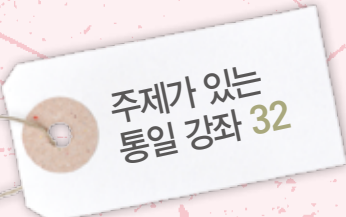
- 1. 결혼가정과 새 가족형성 42
- 2. 세대갈등 양상과 좋은 아버지상 48

3. 청년들의 애정관과 노동관	51
4. 여성노동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가부장주의	56
5. 개인주의, 소비에 대한 욕망	58

IV. 계급교양 역사물과 일제 강점기 계몽가요 붐의 실상 ... 69

1. 계급교양 역사물	71
2. 계몽기 대중가요의 인기와 '조선민족 제일주의'	77
3. 일제 강점기 계몽가요 보급과 민족성의 강조	83
4. '음악 정치'의 의미와 정치적 기능	85

V. 맺음말 ... 91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

1. 문예이론과 정책적 목표
2. 김정일 정권의 주요 선동매체로서의 영화와 소설
3. 총서 '불멸의 역사'와 '불멸의 향도'의 위상과 역할

I.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

1. 문예이론과 정책적 목표

북한의 문학예술, 특히 소설문학과 영화문학은 몇 가지 중요한 창작원칙과 창작방법, 그리고 사상미학적 합법칙성에 따라 창작된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확립되었고, 문학예술분야도 그러한 흐름에 발맞추게 된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로 넘어오며 점차 김정일이 후계자로 권력의 핵심에 떠오르면서 부쩍 우리식의 사회주의 건설이니 우리식의 문학건설이니 하는 등의 표현이 여러 저작에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문예이론의 해설서 역할을 하는 「주체적 문예이론의 기본」(1~3권, 문예출판사, 1992)을 보면 문학의 본성, 새로운 사회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사상미학적 원칙과 창작방법, 공산주의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 노정, 혁명적 창작원칙, 종자론, 수령형상창조 등의 목차가 눈에 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 문예 이론과 정책적 목표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게 된다.

1) 주체적 인간학의 정립

북한 문예이론의 핵심중 하나는 ‘주체적 인간학’을 내세우는데 있다. 주체적 인간학은 주체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 지침”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확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최근에 강조하는 새로운 문학예술은 바로 주체형 인간의 전형적 형상을 창조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체적 인간학의 의미는 다음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문학은 세계의 주인이며 역사의 창조자인 사람의 생활을 언어로 형상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간학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9권, p.465)

문학은 인간학이다.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다. (김정일, 「영화예술론」 p.4)

사실 문학이 인간학이라는 김정일의 교시는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의 원조는 러시아의 고리키이다. 고리키는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불렀는데, 문학을 통해 인간의 실천적·정신적 활동의 가장 복잡하고 섬세한 제현상을 전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고리키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김정일은 주체적 인간학을 내세우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문학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문학이 산 인간을 그린다는 문학의 본성에 대한 천명은 바로 북한의 문예이론이 사실주의적 문학을 추구하고 있음을 말한다. 즉 북한의 문학예술은 주체사상을 세계관적 기초로 하여 인간을 그리고 인간문제를 풀 때 새 시대의 참다운 인간학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적 인간학의 정립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서 소설 문학이 예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소설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 인물 성격의 창조와 형상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에서의 주체의 개념은 인민대중에서 수령으로 변질되었고, 수령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을 요구함으로써 주체사상은 인민의 비주체화를 합리화하는 이념적 도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수령이 인민을 최고 뇌수로서 지도해야만 한다는 교조적 논리는 구소련의 스탈린시대로 회귀한 듯한 느낌을 준다.

사실상 공산주의는 구소련 연방의 해체와 동유럽의 자유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인민을 우주의 중심에 놓았다는 주체사상 또한 이제는 생명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2만 명이 넘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으며, 아직도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등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문화예술에서 창조하고자 하는 주체형의 인간 역시 실제 북한주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당위적인 인간형, 즉 당과 수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인간형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2)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구현

북한의 문예이론서들은 주체적 인간학의 본질은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형상화하려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주체로 창조하려는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중국에는 수령형상 창조로 이어지지만 중간 단계로써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구현을 통해 인민을 자주적인 주체로 형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은 원래 구소련 문예이론의 바탕이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서 중심적 창작원리였던 것들을 북한

주체사상에서 그대로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체사상의 원류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인민성을 제일 앞세우는 반면, 북한에서는 당성을 제일 앞세우고 인민성을 가장 뒤에 가져다 놓고 있다.

먼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성, 계급성, 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인민성의 문제는 예술과 대중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예술은 대중의 감정과 사상의 의지를 결합하고 이를 더욱 고양시켜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말한다. 예술의 계급성은 예술에서 계급적 견해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며, 당성이란 당과 예술가를 동일시하여 예술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활동적인 수단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에서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란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토대로 주체사상의 관철을 위해 투쟁하고, 혁명투쟁의 관점에서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인민대중의 감성에 맞게 혁명사상으로 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¹⁾ 특히 북한이 가장 우위에 두고 있는 당성은 본래 사회주의적 경향성을 묘사하고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나 북한에서는 다음의 김일성 저작에 드러나듯 주체사상의 관철이나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1)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1」, p.218

예술인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당과 혁명을 위한 예술,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한 예술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저작집」 12권, p.11~12)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입니다. 그것은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자각이며 당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노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입니다.

(「김일성 저작집」 35권, p.378)

결국 북한이 문학예술 창작에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등 자본주의적 자유주의 사상의 침투를 막고, 교조적 수령옹위 사상을 통해 내부적 사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종자론과 수령형상 창조

북한의 문예이론서에서는 ‘종자론’과 ‘형상창조’를 주체적 문예이론의 강령적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자론’이 언제부터 제시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1972년에 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에 삽입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쯤 주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미 1960년대 말부터 김정일에 의해 종자론이 제시되었으며, 수령형상창조도 1960년대 말에 발표된 논문에서 강조되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두 이론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종자’란 문학예술작품의 핵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 “문학예술에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담겨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를 의미한다. 즉 문학작품 속에 내재된 작가의 사상이나 주제의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종자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이며 다음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의거한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은 본래의 예술성보다 지도자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한편 북한사회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주체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의 혁명위업을 강조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문예이론으로 나타난 것이 ‘수령형상창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수령을 형상한다’는 것은 수령의 혁명역사와 숭고한 품모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예술적 화폭에 그려 수령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감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수령형상을 잘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형상과 구별되는 수령형상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한다. 즉 수령형상은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이 창조하는 형상인만큼 문학이 중심에 놓고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인민형상과의 관계와 그리고 보통혁명가나 보통지도자와의 관계를 잘 밝혀야 하며, 이것을 밝히면 수령형상이 보통혁명가나 보통지도자와 구별되면서도 노동계급의 혁명문학이 창조하는 가장 인민적인 형상으로서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수령형상을 창조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기본의 기본이라고 북한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수령형상창조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²⁾ 첫째, 충성심을 다하여 최상의 높이에서 형상할 것, 둘째, 밝고 정중하게 형상할 것, 셋째, 인민들 속에 있는 수령을 형상할 것, 넷째, 위대한 인간의 형상을 창조할 것, 다섯째, 역사적 사실에 철저히 기초하여 형상을 창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령형상 창조이론은 겉으로는 수령 - 당 - 인민의 삼위일체의 화합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격화된 수령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일인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2. 김정일 정권의 주요 선동매체로서의 영화와 소설

김일성 시대와 달리 김정일 시대의 북한문학은 몇 가지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해방 직후의 혁명극이나 송가 등의 장르를 통해 항일혁명문학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중·장편소설 등 문학의 본래적 장르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영화 장르를 대중홍보나 선동의 매체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의 선전·선동사업을 일찍부터 주관하던 김정일의 확고한 예술관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정립에 직접 관여하였

2) 윤기덕, 『수령형상 창조』, (평양:문예출판사), p.178 ~ 237, 1991

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중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설과 영화 장르가 대중을 선동하고 홍보하는데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김정일이 1967년 무렵 ‘4·15문학창작단’을 만들고, 그곳에 소속된 작가들의 작품 창작에 수정을 가하고 작품의 종자를 잡아주는 행위까지 한 것은 바로 그가 엥겔스의 반영론이나 문학의 계급성과 경향성을 강조한 주다노프주의에 충실하고 있는 교조주의자임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그가 소설의 대중선동성을 중시하여 처음 착수한 것은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을 찬양하는 ‘불멸의 역사’ 총서 발간이고, 그 이후 1980년대에 총돌격전이라는 명칭으로 두 차례나 밀어붙였던 사업이 ‘중·장편소설 창작전투’였다. 이러한 소위 ‘창작전투’ 결과 10여 년 사이에 무려 100여 편의 중·장편소설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까지 수백 편의 소설이 창작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그 결과 쏟아져 나온 중·장편소설의 주제는 혁명전통의 주제, 조국해방전쟁 주제, 사회주의 건설 주제, 조국통일 주제, 역사 및 계급교양 주제 등 다섯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1992년에 나온 시집 「궤도를 따라」(강인철 편)의 목차를 보면,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북한 시문학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 시집에는 여섯 가지의 주제별로 20여 편씩의 시가 실려 있다. 그 테마는 ‘태양은 빛나라’, ‘우리는 백두산에 올랐다’, ‘90년

대의 숨결’, ‘조국과 병사’, ‘내 사랑, 내 조국’, ‘주체의 궤도를 따라’로 되어 있다. ‘태양은 빛나라’와 ‘우리는 백두산에 올랐다’는 앞서 소설 문학에서의 김일성의 혁명활동과 혁명적 가정을 주로 다룬 ‘혁명전통 주제’와 일치하는 내용이고, ‘90년대의 숨결’은 자력갱생의 국가적 추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회주의건설 주제’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조국과 병사’와 ‘주체의 궤도를 따라’는 ‘조국해방전쟁 주제’나 ‘조국통일 주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 장르와 소설 장르의 미학적 특성의 차이로 서사성이 강한 ‘역사 및 계급교양 주제’만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시 문학에서는 특이하게 ‘내 사랑, 내 조국’이라는 민족애나 향토애를 강조하는 테마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 내용은 주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거나 어머니로 상징되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나 동지애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대동강을 소재로 고향에 대한 정이나 잘 영근 벼이삭과 햅쌀 냄새를 강조하며 고향의 처녀에 대한 정취를 노래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민족애나 향토애를 강조하는 것은 조국애를 고취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는 소설문학의 다섯 가지 테마에 한 가지를 더 얹어 주는 최근 북한문학의 새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북한 문화예술의 여섯 가지 주제 ▶

구분	혁명전통주제	조국해방주제	사회주의건설주제	조국통일주제	역사 및 계급교양 주제	민족애 및 향토애 주제
대표작품	'불멸의 역사' 총서 및 '짚레꼴', '우등불'	'태백산 줄기', '양심과 운명'	'청춘송가', '평양시간', '철의 신념'	'후대의 길', '조국과 운명'	'감오농민전쟁', '이순신 장군', '황진이'	시집 '괘도를 따라'
국가목표와의 연계성	자주정치 + 선군정치	선군정치	인덕정치	애국애족 정치	자주정치 + 인덕정치	자주정치

3. 총서 '불멸의 역사'와 '불멸의 향토'의 위상과 역할

북한문학의 가장 중요한 창작원리는 무오류의 완전한 수령의 존재를 가정하는 '혁명적 수령관'으로서 총서 역시 이를 바탕으로 삼고 있는 창작물이다.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을 찬양하는 내용의 총서 '불멸의 역사'는 애초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를 중심으로 15권으로 완성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총서 '불멸의 역사' 중 맨 처음으로 발간된 「낮은 올랐다」(김정, 1986)와 「혁명의 여명」(천세봉, 1987)의 맨 뒤쪽 서지사항 바로 다음 면을 보면 번호 1. 「낮은 올랐다」부터 번호 15. 「준엄한 전구」(김병훈)까지의 총 15권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여기에 총서 '불멸의 역사'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이라고 한 것에서 해방 후편도 15권으로 연속해서 발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길상이 지은 「주체문학의 새 경지」(문예출판사, 1991)의 54쪽에서도 총 15권의 혁명

역사의 매 단계와 작품명 그리고 작가명이 제시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이 된다. 하지만 1988년 해방 후편 중 「빛나는 아침」을 출판하면서 점차 발행권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편 15권, 후편 15권의 총 30권으로 완성되지 않았는가하는 학계 의견도 있었으나 김정일의 영도력을 미화시키는 ‘불멸의 향도’ 총서가 지속적으로 간행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몇 권으로 완결될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되어 버렸다. 이렇게 ‘불멸의 역사’ 총서와 ‘불멸의 향도’ 총서가 끊임없이 발행되는 이유는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3대 세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총서 ‘불멸의 역사’의 발간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 권력기반이 취약했던 장남 김정일은 김일성의 신임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수령의 위대성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총서의 발간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는 총서 ‘불멸의 역사’가 ‘김정일의 지도’를 거쳐 그 제명이 그대로 종자가 되어 총서의 통일성과 완성된 형상미를 보장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총서 발간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김정일이 반종파투쟁을 통해 김일성의 정적을 제거하고 유일체제를 구축하는 과정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김정일은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예술인의 숙청에도 관여하는데, 이중 카프(KAPF)의 역사적 전통을 항일 빨치산

투쟁보다 더 우위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막·서만일·윤두현 등에 이어 나중에는 한 설야와 박팔양까지 숙청하게 된다. 당시 김정일은 “반당반혁명분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적 문화예술 전통을 내세울 대신 일부 불건전한 자들을 내세워 ‘카프’의 전통을 계승하여야 한다는 잡소리까지 하였으며 민족문화유산 계승에 있어서도 당의 노선과 원칙을 어기고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의 편향을 나타냈다”고 비판하고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령형상 창조 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던 것이다.³⁾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

카프(KAPF)는 1920년대 공산주의 이론이 도입되면서, 박영렬, 안석영, 김기진 등 문학예술인들이 결성한 좌익 문예단체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예이론서들은 총서 창작의 목적을 “수령의 위대성과 고매한 품모를 깊이 인식하고 수령을 따라 배우도록 하려는데 그 창작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의 이미지 강화를 통해 독재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총서를 간행했다고 볼 수 있다.

총서의 서술방식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술방식인 기전체(紀傳體)를 빌려와서 서술하고 있다. 단순히 연대기적 기술을 하지 않고

3) 1967년 6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4·15문학창작단을 내올 데 대하여」(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김정일선집」 권1,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p.241 ~ 242, 1992

김일성을 중심축으로 하여 매 역사적 시기 그와 연관을 맺는 인물들을 방사형으로 포진시켜 인물의 성격, 가족관계, 혁명적 동지애, 직무 수행능력, 공작의 정치함 등을 묘사하여 총체적으로 현상과 김일성의 인물됨을 파악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대체적으로 시점은 ‘김성주동지께서는’이나 ‘사령관동지께서는’ 또는 ‘그이께서는’ 등의 3인칭을 사용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을 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작가의 서술방식을 분석해보면, 적대적 갈등과 비적대적 갈등으로 ‘갈등구조’를 설정하여 호불호의 감정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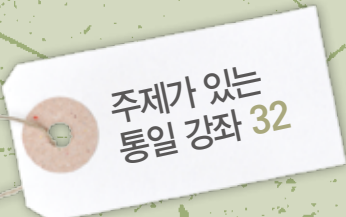
한편 김정일에 대한 수령형상문학은 김일성이 생존해 있던 시기부터 송가, 가사, 단편소설, 장편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시도되고 있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한없는 사랑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의 여러 저작물에서 1980년대부터 김정일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수령을 계승한 문학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형상문학이다’ 라는 대담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여 등장한 것이 김정일의 영도력과 공적을 찬양하는 ‘불멸의 향도’ 총서이다. 이중 1988년 창작된 「아침해」는 김정일이 통 크고 담대하게 결단을 내려 은률의 장거리 벨트 콘베어 건설을 짧은 기간 내에 완성한 영도력과 공적을 찬양하는 장편소설로서 수령계승형상 창조의 최초 작품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에 대한 북한 문예비평서들의 논평과 태도는 분명하고 직설적인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계승한 김정일이 신과 다름없이 북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인민들의 미래의 삶마저 확실하게 장밋빛 설계로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다.

최근에도 총서 ‘불멸의 향도’는 1998년의 「력사의 대하」와 1999년에 나온 「전환」과 「평양의 봉화」에 이어 2002년의 「계승자」가 출판됨으로써 지속되고 있다.

◀ 총서 '불멸의 역사'와 '불멸의 향도'의 비교 ▶

구분	불멸의 역사 총서 (김일성의 수령형상 창조)	불멸의 향도 총서 (김정일의 수령형상 창조)
대표작품	「맞은 올랐다」, 「혁명의 여명」, 「은하수」, 「대지는 푸르다」, 「봄우뢰」, 「1932년」, 「근거지의 봄」, 「혈로」, 「백두산 기슭」, 「빛나는 아침」, 「50년 여름」 등	「아침해」, 「예지」, 「불구름」, 「동해천리」, 「전환」, 「평양의 봉화」, 「서해전역」, 「평양은 선언한다」, 「총검을 들고」, 「계승자」, 등
차이점	1. 항일 투쟁에 역점 2. 영웅적 지도자상 부각	1. 반미 투쟁에 역점 2. 북한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상 부각 3. 강성대국 건설의 역군 이미지 고양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II

문화예술에 반영된 북한사회의 모습

1. 관료제의 병폐와 '숨은 영웅' 찾기
2. 과학기술적 혁신과 청춘의 강조
3. 증산을 위한 '자력갱생'의 의미와 한계

II. 문화예술에 반영된 북한사회의 모습

1. 관료제의 병폐와 ‘숨은 영웅’ 찾기

북한이 지속적인 식량위기로 치닫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생산력 저하의 문제이다. 즉 사회주의 영농방법인 협동농장시스템의 한계, 주체농법의 비효율성, 비료·농약의 공급 실패, 농기계의 노후화, 간석지 개간의 실패, 구소련 연방의 해체 이후 경화결제에 따른 외화부족과 무역 감소 및 자연재해 등에 의해 생산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식량위기의 원인으로 농업위원회와 노동당 조직 그리고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조직의 ‘관료주의’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장편소설 「씨앗」이나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 등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



주체농법에 따른 다락밭 개간

들에서는 중앙당에서 생산목표를 할당하고 각 지역의 당 간부들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상에 앉아 공식적 보고채널을 통해 보고받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호통치는 것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안일함과 보신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가 안고 있는 폐쇄성과 비효율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농민소설 「씨앗」(한운, 1992)은 석정농장의 평범한 농장원인 주인공 차수옹이 과학자들도 어려운 다수확 벼품종 개발에 열정적으로 매달려 여러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원친간의 교잡에 의해 이상기후에도 잘 견디는 신 벼품종 ‘석정 87호’ 개발에 성공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는 북한이 스스로 경계하고 비판하고 있는 관료주의의 유형과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식량위기를 초래한 요인으로 관리일꾼들의 태만과 무책임성이 제시되고 있다. 즉 계획경제의 알곡증산의 할당량이 선전과 달리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치는 것은 바로 관료주의의 병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창의성을 죽이는 배정할당량 달성 위주의 행정과 상명하복의 무사안일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낡은 방식을 탈피하여 무엇인가가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내고 실천하려고 해도 만일의 실패에 따른 책벌이 두려워 결국은 주저앉고 만다는 작업반장의 독백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작가는 행정관료들의 비판회피와 보신주의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다. 「씨앗」에서 친구 류성남은 차수옹을 변호하기 위해 군경영위원장을 면담하지만, 관리일꾼들의 주관주의와 보신주의에 손을 들고 만다. 넷째, 북한의 농정을 망치는 또 다른 관료주의의 모습은 탁상행정이 가져다주는 모순과 불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일꾼들이 실무적인 일로 바쁜 것을 핑계로 ‘의무공수’를 빼고는 책상에 앉아 보고받고 전화나 공문상으로만 행정을 처리하려는 편의주의 내지는 요령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씨앗」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우린 군에 틀을 차리구 앉아서 농장에서 올려보내는 보고나 받구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하는 하나의 관료가 되고 말았던 말이요. 당에서는 밑에 내려가서 생산자들속에서 일어나는 혁신의 불꽃을 발견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씨를 심어주어 그것이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타 번지게 하라구 가르치는데 우린 의연히 실무에 발목이 매여 사무실을 뜨지 못하고 있던 말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중략) 우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족화되었소.

한윤, 「씨앗」, (평양 : 문예출판사), p.369, 1992

한편 1980년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당과 지도자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숨은 영웅’을 형상화하는 문학이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 1987년 창작된 「청춘송가」 역시 이러한 계열의 작품이다. 「청춘송가」(남대현, 1987)는 제철소 강철직장에 기사로 있는 이진호의 제철건설의 혁신(새 연료안 실험)에 관한 치열한 삶과 창조 정신 그리고 남녀주인공의 로맨스를 다룬 북한의 최고 인기 장편소설이다. 강철직장 기사인 윤정아도 원래는 진호의 새 연료안에 거부감을 가졌으나 진호의 기술안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체면과 자존심을 꺾고 진호를 돕겠다고 자원하는 능동적이고 개척적인 새 인물이다. 주인공 이진호와 윤정아의 모습은 1980년대 문학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숨은 영웅’형상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평범한 인물이지만 사회주의 건설에 앞장서는 창조적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투쟁형의 인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는데, 문학예술에서도 이러한 인물을 발굴하여 형상화하는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북한 사회에서 ‘숨은 영웅 찾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들을 ‘따라 배우기’ 할 것을 전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선동·홍보하였다. 이는 숨은 영웅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영웅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집단적 경쟁의식을 제고하여 느슨하고 안일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생산력 저하를 막아보려는 사회통제 방안의 하나로 보인다. 대표적인 인물로 정춘실이 있는데, 그녀는 전천군 상업봉사일

꾼으로서 인민에 대한 봉사와 희생, 그리고 전천군의 상업봉사를 엄청난 노력을 들여 모범 단위로 꾸림으로써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영웅 칭호를 받았다. 이후부터 북한은 정춘실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으며, 영화로도 제작하여 보급(영화 「효녀」)하였다.

이러한 ‘숨은 영웅 찾기’ 운동은 천리마 운동, 속도전, 붉은기 쟁취 운동 등 증산 위주의 군중노선으로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생산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숨은 영웅 찾기’ 운동도 시들해지고, 북한 사회는 전반적으로 체제 이완의 급격한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다. 계속된 채찍질에도 생산성은 증대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피로도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채찍질의 결과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대량 탈북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과학기술적 혁신과 청년의 강조

북한은 선군시대와 현대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 영재들을 뽑아 특수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원래 특수교육은 음악, 미술, 무용, 체조 등 예술적 재능이 있는 아동들을 발굴하여 예체능계 학교에 입학시켜 특기자로 양성하는데 치중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영재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제1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제1중학교에서는 일반 중학교와 다른 특수교재를 사용하여 자연과학, 컴퓨터 및 영어 등을 배우고, 졸업 후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일대일 교육을 받으며, 농촌 지원활동, 군 입대 등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고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러한 수재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은 1990년대 후반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 아래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면서 강화되었으며, 북한 당국이 “정보산업 시대 과학기술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⁴⁾고 말한 데에서도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발전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는 북한 매체에서 ‘선군(先軍)시대의 대 기념비적 명작’, ‘새세기 주체영화 예술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놓은 본보기 작품의 하나’로 선전하며 2006년 8월 6일 평양영화관에서 일제히 개봉됐다. 이후 2년에 걸쳐 무려 북한 주민 800만 명이 관람했다고 하여 주목을 받았다. 「한 여학생의 일기」는 “평범한 한 과학자 가정의 생활을 일기 형식으로 펼쳐 보이면서 선군시대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고 새세대 청년들의 참다운 이상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훌륭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북한방송이 보도한 바 있다. 그 해답은 바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넘겨줄 가장 큰 재산은 어떤 명예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 장군님(김정일)을 진심을 다

4) “북한의 교육과 문화예술”, 「북한 이해 2011」, 통일교육원



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

바쳐 받들어 나가는 양심과 의리에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고 북한방송이 선전하기도 했다.

「한 여학생의 일기」는 여고에 다니는 평범한 한 여학생이 다른 친구의 부모들은 휴일날 쉬면서 가족들과 야유회도 가고 외식도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휴일도 없고 밤낮없이 일하면서 가족들을 챙기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우연히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과학 연구원을 방문하여 아버지가 부하직원들을 독려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발명품을 제작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음을 반성하게 된다. 큰 틀에서는 세대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지만 자연스럽게 과학자에 대한 존중을 유도함

으로써 과학기술적 혁신에 대해 북한당국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사실 북한의 문학과 영화 등에서는 198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남한과의 군비전쟁과 산업 근대화 경쟁 등 치열한 생존경쟁의 여파로 보이는데, 1980년대 말 이후에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기술적 원조를 받기 어려워진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학생의 일기」에 등장하는 과학연구원

염단용의 「령마루」(1980, 문예출판사)는 철광산의 기사장인 현우림이 불치의 병으로 90일밖에 더 살지 못하는 처지에서 남은 생을 보람 있게 사는 신념을 보여주는 장편소설이다. 전문기술인이면서 광산의 운영책임자이기도 한 현우림은 광산내의 동료나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산의 종합기계화 및 갱내의 공기를 정화시

키는 중화제의 연구를 앞장서거나 뒤에서 돕는 등 증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일에 매진하여 성공단계에 이르게 한다. 또 장동일의 중편 「밤노을」은 북방의 한 제철소 노동계급들이 철콕스 생산에서 ‘80년대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펼치고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정창윤의 장편 「먼길」도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려는 참된 과학자상을 묘사한 작품이다.

한편 남대현의 「청춘송가」(1987)나 신용선의 「봄은 아직 멀리에」(1988)는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나와 생산현장인 강철직장이나 새 탄광으로 자원하여 부임하여 현장에서의 현실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이야기다. 「봄은 아직 멀리에」의 주인공 최정무는 대학입학도 포기하고 탄광으로 달려가 참된 낭만은 바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지향을 불태우는데 있다는 신념으로 개발지의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는 투지를 보여준다. 소위 북한에서 제 3세대나 제 4세대의 청년들이 갖추어야 할 신념과 야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청춘’을 요즈음 다시 강조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기존 노동자의 연령층이 높아져 새로운 증산이 어려워진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증산을 위한 ‘자력갱생’의 의미와 한계

‘자력갱생’이란 용어는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운영해 나간다는 정책의 기조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북한이 50여 년동안 변하지 않고 줄기차게 사용한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자력갱생’이 아닌가 생각된다. 1960년대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공식화되면서 중국공산당이 1950년대부터 즐겨 구사했던 자력갱생의 구호를 수용하여 주체사상의 지도적 지침인 ‘경제에서의 자립’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는 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를 이끌고 나가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북한은 중소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의 원조가 삭감되어 5개년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1960년대에 주민노력동원의 일환으로 이 원칙을 원용하였다. 그 뒤 이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삼아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요즈음 같은 글로벌 시대에 자력갱생은 고립화를 자초하고 경제적 궁핍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영화는 매우 중요한 매체이다. 그 이유는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은 북한에서 김일성 훈장을 받은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1989년에 만든 작품이다. 이 영화는 계관인인 이춘구가 영화문학을 썼고,

고학림이 연출한 작품이다. 이춘구는 유명한 「민족과 운명」의 시나리오의 상당 부분을 창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심장에 남는 사람」은 최삼숙(금강산가극단 장윤희도 부름)이 부른 주제가가 북한 인민들에게 크게 히트하였고, 여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가 인민배우인 홍영희라는 것도 화제였다.

「심장에 남는 사람」은 노동신문 기자인 남혜가 영동 다이아(타이어) 공장에서 날아온 편지 한 장을 받고, 다이아 공장 당비서를 취재하러 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시대배경은 1970년대 중반으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첫 장면은 남혜의 애인인 이철(무역회사 근무)이 기차역에서 취재차 떠나는 남혜를 전송하며 “만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연애기간이 너무 길면 화가 된다”는 말도 있으니, 다녀와서 자신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 영화의 주제가가 인기가수 최삼숙의 낭랑한 목소리에 실려 애절하게 자막 사이를 흐른다. 사실 이 노래는 남북문화예술교류에 의한 평양 예술공연에서 가수 조영남이 평양관객 앞에서 불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공연은 남한 TV에 생방송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주인공 정남혜 기자는 다이아 공장 당비서를 만나러가지만 원학범 당비서는 그녀의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 자신은 아직 경험이 그리 많지 않고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실적이 없다고 취재를 거부한

다. 애초에는 이러한 원학범의 태도를 오만한 당비서의 관료주의로 잘못 해석했던 남혜는 공장 주변인물과 당비서 주변인물들을 취재하면서 자신의 당비서를 보는 인물관에 문제가 있었음을 반성하게 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가족까지도 돌보지 않고 당을 위해 헌신적인 원학범 당비서에 대해 애정 어린 시선을 던지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

「심장에 남는 사람」에서 주인공은 원학범 당비서이지만, 실질적 후원자는 ‘생산성 증대’라는 당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 힘껏 그를 밀어주는 기술자 그룹인 임석준과 이영갑이라고 할 수 있다. 임석준은 몇 가지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등 인텔리 계층이다. 그리고 이영갑도 상당한 기술을 가진 인재이지만, 대낮에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는 등 술도깨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 관료들인 지배인과 기사장 그리고 기술과장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

다. 원학범은 상급당간부인 구역 당비서에서 자원하여 현장관리책임자인 당비서로 부임하여 이들 근로자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세포조직에 스스로 뛰어든다. 그리고 임석준과 이영갑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한다. 즉 당성과 노동계급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민성의 구현을 실천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 기술자그룹을 인간적으로 설득하여 조직을 장악한 원학범은 당 결정서에 합성고무(외국수입에 의존하는 생고무)보다는 재생고무만으로 다이야 생산을 증대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실천방안을 집어넣고 당 총회를 개최하여 추진 받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학범의 실천적인 헌신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은 오히려 문제그룹으로 알려졌던 기술자그룹보다는 행정그룹과 당 관료들인 것으로 나온다. 특히 기술과장의 관료주의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밝혀진다. 그는 원학범이 여동생 부부를 만나기 위해 황해도를 방문한 사이 이영갑을 대낮에 음주한 것으로 몰아 공장에서 축출시키는 결정을 유도한다. 원학범이 돌아오자 이미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책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출시킬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하지만 기술과장은 원학범으로부터 추궁을 당한다. 우선 책상에서 조사한 것인가, 이영갑의 집을 방문하는 등 현장을 찾아서 조사를 했는가 등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결국 이영갑이 먹은 것은 보건소에서 병이 모자라 인삼주병에 넣어준 기관지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밝혀져 기술과장은 허위보고로 오히려 위기에 빠진다.

또 기술과장은 정상근무시간에 낚싯대를 수리하고 근무시간에 미끼인 지렁이를 잡으러 가는 등 근무지 이탈을 한 것이 드러난다. 북한 당국이 낚은 것으로 지적하면서 혁명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료주의의 병폐인 주관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요령주의의 병폐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또 기사장이나 지배인 등의 행정관료들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와 탁상행정의 문제점도 폭로된다. 상급기관에서 생고무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창발성의 발휘 등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책임회피와 극도의 보신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또한 원학범은 김정일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책무를 다짐하고 돌아와 실제와 달리 장부나 공문서 상에서만 일치하는 숫자중심의 행정, 상급기관 보고 중심의 행정의 틀을 깨려고 절치부심한다.

한편 북한 예술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은 북한 경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면서 개혁개방을 무시하고 폐쇄적인 고립주의를 선택하여 모든 산업의 원자재를 자력갱생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인공 원학범 역시 타이어의 원자재인 고무를 수입하지 않고, 신발을 수집하여 재생고무를 통해 조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관료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현장에서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원학범의 뛰어난 리더십을 증점적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본적인 원

자재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북한의 자원난과 고립주의 정책, 자력갱생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 사회가 군수산업을 빼고 거의 모든 산업이 50~60여 년 동안 발전이 없이 정체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III

문화예술에 나타나는 북한주민의 현실 문제

1. 결손가정과 새 가족형성
2. 세대갈등 양상과 좋은 아버지상
3. 청년들의 애정관과 노동관
4. 여성노동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가부장주의
5. 개인주의, 소비에 대한 욕망

Ⅲ. 문화예술에 나타나는 북한주민의 현실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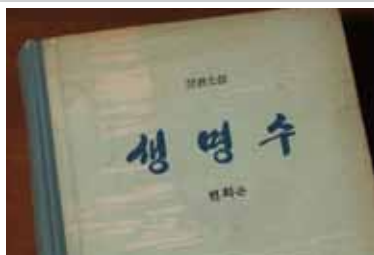
1. 결손가정과 새 가족 형성

북한의 대표적인 소설문학이나 영화에서는 결손가정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한 특징이다. 소위 혁명영화인 「꽃 파는 처녀」, 「피바다」에서는 아버지가 없고,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서는 어머니가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영화에 ‘고아’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육친이 없이도 어버이 수령의 은혜로 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은 6·25 전쟁이 끝난 전후 복구시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문학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특히 김일성 사후의 유훈통치기에 결손가정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것은 수령의 부재와도 관련성이 있다. 또 21세기의 문학에서도 등장하는데, 이는

전쟁경험이 없는 신세대들에게 전쟁시기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결손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좀 더 극적으로 만들어 이 전 세대의 고통과 영웅적 행동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장편소설 「생명수」는 1989년 계관작가 변희근이 지은 작품으로 정전 후 인민경제의 복구를 배경으로 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이다.

「생명수」가 북한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6·25 전쟁이 끝난 후 폐허상태의 북한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혁명적 군중동원이 필요하였는데, 군중노선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적 사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리마운동 시기에 천리마기수를 전형적인 인물로 내세워 김일성이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자연개조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전쟁영웅만이 북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 묵묵히 헌신하는 노력영웅이 사실상 숨어 있는 영웅으로서 앞으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소설 「생명수」



영화 「생명수」

더욱 필요한 존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북한에서 극찬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생명수」는 1960년대부터 북한이 심혈을 기울이며 역점을 두었던 사업인 ‘자연개조계획’의 실천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흉수로 큰 피해를 보기만 했던 봉산벌 농민들이 빗물을 받아 농사를 짓는 전근대적 영농방법의 혁신을 위해 전개하게 된 어지돈 관개공사에 성공을 미화시킨 장편소설이다. 「생명수」에서 주인공 박대성과 남성우가 새 세대의 리더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여성으로는 숙련된 목공 송병무의 딸인 송선희와 강안마을 위원장의 딸인 김봉숙이 여성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 영화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건설에 앞장서서 새 세대의 영웅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미화시키는 작품이 많은데, 「생명수」도 그러한 스테레오 타입에 부합하고 있다. 박대성의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이 물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보내준 양수기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가 미군의 폭격에 의해 목숨을 잃은 박덕삼의 아들로 묘사된다. 원래 박대성은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하여 김일성 종합대학교 정치경제학부에 진학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수재였다. 하지만 박대성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김일성 종합대학교의 진학을 포기하고 부친의 위업을 이어 관개 건설자로 나설 결심을 하게 된다.

그것은 비단 전화 속의 어설픈 꿈결에도 못 잊어 찾아들던 그리운 고향집,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에서만은 아니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언제나 동경해 마지 않던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할 추천서가 간직되어 있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희망찬 대학시절과 빛나는 앞날을 두고 그의 꿈은 참으로 황홀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립문밖에서부터 어머니를 부르며 달려들어간 집에서는 아버지를 잃은 뜻밖의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성은 하늘이 무너진 듯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복수심으로 미칠 것만 같았다. (중략) 사흘 후에 대성은 배낭을 지고 평남판개 건설장으로 다시 떠났었다.

변희근, 「생명수」, (평양: 문예출판사), p.26~27, 1978

이러한 박대성은 북한 당국이 그렇게도 찾으려고 애썼던 숨은 영웅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작품 속에서 어떠한 난관에 봉착해서도 관개공사의 속도를 앞당기려고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임무인 연공작업반장의 일에 몸을 던져 헌신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경험이 없으면서도 조직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평양집으로 도망을 쳐버린 남성우를 평양까지 찾아가 설득하여 중국에는 새 세대의 노력영웅으로 키우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흠모와 사랑의 눈길을 보내는 봉숙과 선희를 품어 안아 여성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게 이끄는 역할을 한다. 결국 주인공이 결손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에 안착하여 새 가정을 형성하여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귀결시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작품이다.

한원희의 「갈매기」(「조선문학」, 2000. 12) 역시 결손가정의 이

야기이다. 이 작품은 새 세대 여성의 참사랑을 다룬 단편소설이다. 「갈매기」도 여성적 글쓰기의 전형적 작품이고, 북한 신세대 여성의 사랑에 대한 낭만적 견해와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한 유대의식을 토대로 삼고 있다. 압록강 하구부터 황해남도 부포까지 천해양식장에 떼뺏줄을 실어 나르는 선박에서 14명 선원들의 취사를 책임지고 있는 홍명애는 선원 남태성의 노골적인 구애에 괴로움을 겪는다. 홍명애는 어머니를 어릴 때 여인 결혼가정의 자녀로서 집안의 세간살이를 도맡아 하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강인한 성격에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막히는 일이 없는 여성으로 묘사된다.

「갈매기」에서 홍명애의 배는 여유식량이 이틀 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은 암초에 부딪히고 나침반 고장으로 백령도 근처까지 표류하다가 급선회로 인해 전복 위험에 처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배는 파도에 부딪쳐 발동마저 멈춘 상태이고 부선 예약이 추진기에 감겨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봉착한다. 그 때 남태성은 홍명애에게 식칼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옷통을 벗고 물살이 거친 바다로 뛰어들어 배 밑창에서 밧줄을 풀어내는 작업을 한다. 그동안 말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 홍명애의 눈에 무슨 일에서나 사내답게 시원스럽지 못하고 처녀처럼 얌전하기만 한 남태성의 모습은 탐탁치 못했다. 「갈매기」에서 작가는 결국 임무를 완수하고 물 위로 올라온 남태성에게 홍명애는 일제 패망직전에 공출로 남아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간직해왔던 집안 대대로 가보인 식칼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

며, 사내답게 대담하게 배를 구원해낸 그를 바라보면서 행복의 눈물을 흘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갈매기」에서 여주인공 홍명애를 결혼가정 출신으로 묘사한 것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성격의 여성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는 애초에는 남태성이 자신에게 지분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나 그가 배가 난파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조직 구성원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는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그의 사랑을 받아주기로 작정한다. 이러한 21세기적인 청년들의 새로운 가족형성방식은 김정일 정권이 강성대국을 부르짖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북한의 경제난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고난의 행군’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경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로 청년들의 저돌성과 희생적 노동력밖에 대안이 없는 것이다.

한편 「갈매기」에서 여성정체성은 혁명적 동지애의 유대의식 속으로 함몰되어 버린다.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주체적 인간 전형을 창조하기 위해 갑자기 식칼이 등장했고, 식칼의 내력을 강조하면서 “나는 철이 들면서 이 칼의 내력을 알게 되었고 이 칼을 볼 때마다 고마운 우리 제도, 우리 공화국, 우리 장군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고 속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라고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거론된다.

개인의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행복보다는 집단적 안위를 더 중시하는 북한 당국의 체제옹위의 문학관이 반영된 작품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즉 여성의 정체성과 행복을 위한 개인적 가치도 혁명적 동지애에 종속되고 함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2. 세대갈등 양상과 좋은 아버지상

단편소설인 정현철의 「삶의 향기」(조선문학, 1991. 11.)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애정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이성간의 문제, 주부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 등에 대해 그 이전 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삶의 향기」의 주인공 안천주는 공업대학을 나온 대학교수로 방금 달포동안 출장을 갔다가 막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보고 있는 아들 애인의 사진과 일기장을 몰래 훑쳐보면서 아들과의 애정관 차이에 대해 심한 고뇌에 빠지게 된다. 안천주는 아들의 신부감을 자신이 추천하기를 원하며, 좋은 신부감이란 남편의 일을 내조하고 순종적인 여성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중매나 부모의 소개보다는 자신이 연애를 통해 여성을 만나기를 원하고,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순종적인 여성보다는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개척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열정적이고 개성적인 여성인 화학 실험공수미를 신부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장대학 졸업반인 수미는 현재 가열로 개조를 실험하고 있으며 그것의 성공을 통해 전기를 절약하

려는 꿈을 가진 처녀이고, 안천주의 아들은 그 연구를 돕기 위해 문헌연구를 하고 그 실험을 위해 건강을 돌보지 않고 밤을 새는 등의 헌신을 한다. 안천주가 몰래 본 아들의 일기장에는 새로운 여성관과 애정관이 나오며 그녀에 대한 창조적 사랑의 감정이 배어져 있다.

그 나이 또래의 처녀들은 맵시 나는 작은 가방을 들고 또는 메고 행들행들 뽀내듯이 다니는데 … 언제나 배불러 모양도 곱지 못한 이 갈색가방을 사시절 들고 다니지, 향기론 분콰이 아니라 책이 가득 찬 가방이다. …… (중략) 그러나 사랑이 있다. 삶의 본성적 요구인 사랑은 그 어떤 논리나 타산보다 훨씬 강하다. 무엇이 계산된 사랑이라면, 한 쪽의 이기적인 목적때문이라면 그것은 벌써 참사랑이기를 그만 둔 것이다. 서로가 의지되어 서로의 뜻을 꽃피워 주는 사랑, 나는 단 하루를 살다 죽는 대도 이런 사랑 속에 행복하고 싶다. … !

정현철, 「삶의 향기」, 리태윤외, 「빠국새가 노래하는 곳」, 살림터, p.164, 1994)

북한에서 좋은 아버지상이란 자녀와의 세대갈등을 극복하고 자식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가슴으로 품어 안는 인물유형이어야 한다. 또 북한에서는 여성들에게 슈퍼우먼의 존재가치를 강요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조도 완벽하게 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며, 자신의 직장생활도 원만하게 수행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완벽한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인 아버지도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거나 자녀들과 가치관의 차이를 깨닫게 되지만, 작품의 결말에 가서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자녀를 너그럽게 이해하는 포용력 있는 가장의 모습으로 고착화된다. 하나같이 계몽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화목한 가

정으로 회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체적 사회주의’의 한 단면인 것이다.

앞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홍보하는 중요 작품으로 거론했던 「한 여학생의 일기」(2006)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영화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는 개인주의에 젖어 편안한 것만 찾는 18살의 신세대 여학생이 기성세대인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시골의 조그만 집에서 부모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18살의 ‘수련’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 수련은 동급생들의 아버지는 현대식 아파트에 살거나 김일성 훈장을 받는데 비해, 자신의 아버지는 과학원 연구원으로서 불철주야 헌신하지만, 누추한 도시 근교 단독주택에 살고 외식 한번 가지 못하자 불만을 터뜨린다. 즉 도시의 안락한 아파트 생활을 부러워하는 수련은 개인적인 영달과 부귀영화도 마다한 채 오로지 당과 김정일을 위해 과학 연구에만 몰두하는 아버지를 야속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몸져누웠으나 병원으로 오겠다는 아버지가 오지 않자, 수련은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러던 축구선수인 여동생의 문제로 아버지와 상의하기 위해 아버지가 근무하는 과학원을 찾아갔으나 기름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 노동자에게 힐난을 받는 아버지를 보고 실의에 젖어 돌아온다. 하지만 결국 아

버지가 큰 과학적 성과를 이뤄내고 아파트도 현대식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자, 수련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깨닫고 부모처럼 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여 과학자가 되기 위해 과학대학으로 진학하려고 생각한다는 즐거리로 되어 있다.

여기서도 조국과 당을 먼저 생각하는 집단적 사고에 익숙한 부모세대와 개인의 행복과 영달을 더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자식간의 세대갈등 양상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3. 청년들의 애정관과 노동관

북한에서 한 때 청춘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것은 물론 재일조총련 북송자녀 출신의 작가 남대현의 「청춘송가」가 1987년에 창작되고, 그것이 1990년대 초에 드라마로 만들어져 조선중앙 TV를 통해 방영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춘’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말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이화의 장편 「청춘은 빛나라」(1979)와 신용선의 장편 「봄은 아직 멀리에」(1988) 그리고 김용한의 장편 「청춘의 시작과 끝은 언제」(1990) 등이 창작되었는데 이러한 소설들은 혁명 3세대인 청년전위들을 내세워 새 세대들에게 사상 개조는 물론 생산을 독려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창작물들인 것이다. 이러한 소설에서 ‘청춘’의 의미는 공산주의 교양을 받은 ‘순결한 새 세대의 인물’을 표상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청춘송가」에 오면, ‘청춘’의 의미는 좀 더 낭만적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청춘’은 여주인공인 적극적인 성격의 정아가 주는 이미지를 통해서 ‘사랑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창조이다’라는 내포적인 의미로 확산된다. 즉 ‘청춘’은 ‘창조적인 투쟁’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청춘’은 주체적 인간 전형들이 펼쳐나가는 창조의 세계나 생산적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장편소설 「청춘송가」의 주인공들이 그 어려운 길을 꺾듯이 걸어 나간 것은 이 길에 또한 창조와 환희와 보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은 주어진 행복, 찾아온 사랑이 아니었으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창조적인 투쟁이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된다는 것은 창조의 주인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래요. 사랑도 창조해야 하구말구요.”

꽃들이 만발한 화원이나 열매들이 주렁진 과원에서 제마음에 드는 꽃을 꺾거나 입에 맞는 열매를 따는 그런 사랑을 멸시하는 정아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형상에는 그들의 생활에서 새롭게 움트고 자라는 새로운 애정의 윤리와 함께 그 이상으로 창조적인 투쟁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보람, 사랑의 기쁨까지도 찾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깊은 생활철학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오승련, 「주체 소설 문학건설」, (평양 : 문예출판사), p.226, 1994

북한이 1990년대에 건설한 도로 중에는 ‘청춘거리’라는 10차선이 넘는 고속도로 수준의 도로가 있다. 이 거리는 수도 평양과 남포를 잇는 일종의 파이프라인이다. 그런데 ‘청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뜻을 지닌다. 여기에서 ‘청춘’은 순결한 사상적 개조라는 의미의 ‘창조’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이라는 젊음의 힘과 낭만으로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자라는 역동적인 의미가 자리 잡고 있다. 사실상 이 도로는 제대군인 10여 만 명을 동원하여 건설되었는데, 그들은 주로 혈기왕성한 노총각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생산성을 독려하고 노동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처녀 노동자 5만 여 명을 함께 참여시켰다고 한다. 아스팔트 도로가 힘차게 뻗어나가는 동시에 청춘의 혁명적 열정과 생산적인 사랑의 결실도 가로등만큼이나 수없이 맺어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 당국도 그러한 생산적 사랑을 부화방탕이 아닌 범주에서 어느 정도 허용하였다고 한다.

변희근의 「생명수」에 등장하는 남녀주인공들은 모두가 개척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남자주인공인 박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보조적인 인물인 남성우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들인 김봉숙이나 송선희도 매우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들이다. 송선희는 개인적인 이기주의에만 눈이 어두워 장억대가 몰래 가져다준 관개공사 종합기업소의 창고에 있던 전깃줄을 사용하는 목공 아버지 송병무를 냉소적으로 비판하면서 그의 부업행위를 힐난한다. 그리고 그

녀 자신은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부단없이 상급자에게 자주적인 요구를 하여 결국 가스자동차의 운전수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관개 건설공사의 노동자로 동참한다.

또 김봉숙도 강안마을의 농부에서 벗어나서 농촌돌격대를 자원하여 어지돈 관개 건설기업소의 현장노동자로 부임한다. 그녀와 동료 영순은 굴을 뚫는 공사에 투입이 되어 주변도로를 놓는데 건설노동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자연대개조사업의 일꾼 역할을 자청하여 떠맡으면서 보람찬 생활을 투쟁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봉숙은 노력영웅 박대성이 연공작업반장으로서 성공적인 투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후원자가 된다. 한마디로 북한문예이론서에 표현된 대로 감정조직의 기법을 활용하여 산 인간으로 형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명수」는 다른 북한 소설과 달리 여 주인공의 성격을 상당히 진취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대성과 봉숙의 사랑도 봉숙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물론 북한 문학에 등장하는 사랑은 남한에서의 사랑과는 크게 다르다. 소위 자본주의에서는 사랑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겉으로의 형식은 같지만 북한 문학에서의 사랑은 혁명적 사랑이거나 생산적 사랑이어야 한다. 즉 개인적인 낭만적 사랑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 북한 문학의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랑도 조직과 집단의 긍정적인 인

간관계를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주인공의 사랑이야기는 북한의 문예이론에서는 구성조직의 기법 중에서 ‘감정조직’의 기법에 준해서 묘사되어야 한다.

“봉숙동무 …… 나는 동무에게 한 가지 말할게 있소.”

봉숙은 얼굴을 들고 대성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대성은 무슨 생각에 잠겨 개울물을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이예요? 어서 말해요.”

봉숙이 이렇게 속삭이자 대성은 “아니”하고 머리를 흔들더니 “그말은 이제 어지든 생명수가 봉산벌에 흘러가는 그날에 하지.”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개울물가로 걸어갔다. 그를 바라보는 봉숙이의 가슴은 금시 툭 터질 듯이 울렁거리었다. 어쩐지 울음이 북받쳐올랐다.

구름속에 숨었던 달이 방긋 얼굴을 내밀었다. 침침하던 산골짜기가 환히 밝아지고 개울물은 또다시 눈부시게 반짝이기 시작했다.

변희근, 「생명수」, (평양: 문예출판사), p.430, 1978



영화 「생명수」의 남녀 주인공

북한이론서에서 “감정은 인간에게 고유한 속성이다. 감정은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이룬다. 내면세계를 잘 그리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성격 창조와 기본요구이다. 그런데 감정을 떠나서는 인물의 내면세계를 생동하게 보여줄 수 없으며 따라서 산 인간의 형상을 창조할 수 없다”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론과 별반 다르지 않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분에서는 “감정 조직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흥미를 조성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자와 주제사상을 형상적으로 깊이 있게 구현하는데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생명수」의 남녀주인공들의 로맨스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소설문학에서는 포옹이나 키스 장면 같은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의 장면은 묘사되지 않는다. 단지 증산과 절약이라는 대명제 즉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가 된 이후에야 사랑의 결실을 맺겠다는 암시만이 독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4. 여성노동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가부장주의

북한 사회가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한다고 볼 때, 대체적으로 가부장적 분위기가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적 글쓰기의 흐름이 최근 많이 감지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가부장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복례의 소설 「직장장의 하루」도 이러한 전제조건에 상당히 부합하는 텍스트이다.

「직장장의 하루」에서 주인공 김명옥의 심리를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것은 생산량의 초과달성이라는 과업이다. 이러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고, 직장 동료들과 직원들을 채찍질해야 한다. 김명옥을 밤낮없이 짓누르는 것은 바로 생산량이라는 할당량을 달성해야 한다는 중압감이다. 그래서 가정일에 충실할 수 없으며, 남편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로 갈등을 유발한다. 남편과 언쟁을 펼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내로서 내조에 전념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고백적으로 내뱉는다. 같은 직장의 직공인 탄실이 남편을 제대로 내조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자괴감으로 공장을 그만두려고 하면서 “직장장 동지,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가 그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그러다보니 별치 않는 일에 가정불화도 생기구 전 그게 안타까워요.”라고 호소하는데 대해 “탄실이, 나도 동무의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나 자신도 직장장의 일을 그만두고 시키는 일이나 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한 두번이라구. 하지만 우리가 쉬운 일자리나 찾고 남편에게 매달려 산다면 거기에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어… 잘 생각해봐요.”라고 자신도 같은 처지라고 위로한다.

탄실과 직장장 김명옥 사이의 대화에서는 두 가지가 부각되고 있다. 하나는 북한 사회가 가부장제의 기존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우선 남편에 대한 내조에 충실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직장장이나 직공이나 할 것 없이 국가적 과업인 생산을 증진하는 것이 개인적 책무보다 훨씬 보람있는 일이라고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생산과업을 초과달성하는 것은 바로 노동에 대한 부담이다. 주부로서나 엄마로서의 역할보다는 국가적 과업 달성을 위해 노동의 강도를 높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 결국 김명옥은 여성의 정체성 확보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억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가부장제의 존속으로 인한 여성 위상의 몰각과 노동의 종속으로 인한 여성 정체성의 혼돈이 지속되고 있다.

5. 개인주의, 소비에 대한 욕망

인간은 포유류 동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욕망을 무조건적으로 억누를 수 없다.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은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이 소유냐, 존재냐의 분리현상을 가져온다. 그것은 인간이 야누스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찰스 다윈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환상은 깨어지고 만다. 다윈에 의하면, 인간은 더 이상 신적인 존엄성을 나누어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동물들과 같이 동물적 특성을 공유하는 본

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존재일 뿐이다.

홉스 또한 인간을 원자와 같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운동하고 서로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고 있다. 그곳에선 자기 보존의 충동만 있고 그에 따라 그 충동은 서로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므로 누구든 힘을 갖고자 하며 그것은 자량도 수치도 아닌 그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본성이다. 하지만 홉스는 이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적 통찰이자 계산능력을 인정했다. 즉 인간은 이성의 계산 능력을 통해 통제력 없는 자기 보존력이 결국 모두의 자기 보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임을 자각함으로써 사회조직의 경제적 질서 및 국가의 강력한 통치 권력 그리고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그들 자신들의 보존을 위한 사회 관계적 원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도 이드가 가진 무의식 내의 본능적인 공격적 충동 욕구로써 인간의 자기 보존적 특성인 공격적인 성향을 인정했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한편 소비에 대한 무한대의 충동을 갈망하게 유도했다. 오늘날 인간의 본성으로 너무도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개인의 이기적 욕망과 탐욕성은 곧 자본의 탐욕적 공격성을 반영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 속에서 인간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와 자기 성취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개인 및 사회가 겪는 소외와 정신 분열의 양태 또한 다름 아닌 자본주의적 생리의

필연적 반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사회는 개인적인 욕망 자체를 강하게 통제하는 억압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직 집단적인 통제 속에서 약간의 개인적인 탐욕성을 용인할 뿐이다.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패 이후 많은 혼란과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왔다. 북한은 경제난 등으로 인해 완전한 국가배급 시스템이 무너진 이후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상품거래를 묵인했다. 따라서 중국 상품과 한국 상품이 밀거래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공산당 간부를 비롯한 특권층에서는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의 욕망을 드러내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중국이나 한국 상품 등 명품선호 현상도 있으며, 아파트 내에 갖출 수 있는 필수적인 가구나 전자제품의 구비 정도를 가지고 상호 비교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현대적 아파트에 사는가 아니면 누추한 단독가옥인 살림집에 사는가를 비교하거나 휴일에 가족끼리 놀이공원이나 유적지를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만 보더라도 주인공 여학생은 학교 친구의 집과 자신의 집을 비교하면서 가족보다는 과학이라는 국가적 일에만 매달리는 아버지를 비판하고 있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임금, 물가, 환율의 현실화, 배급제 폐지, 독립채산제 도입, 개인 경작지 확대 등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사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훨씬 이전인 1990년대 초부터 북한 사회는 구소련 연방의 해체와 중국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걱정스

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와 자력갱생의 가치를 높이 들면서 내부적인 통제에 주력했다. 하지만 국경지대로부터 넘어 들어오는 개방화의 물결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가 없었다. 영화에서나 소설에서 유난히 김일성 수령이나 김정일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앞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개인주의나 가족 이기주의 그리고 사적인 영역의 확대가 상당한 정도로 인민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예술영화 「청춘이여」(1992)는 그 직전에 나온 「우리는 청춘」(1990)과 그 후편 등과 연계되는 청춘시리즈물로 판단된다. 영화 타이틀은 유사하지만, 후자가 인민군대 이야기로 일관하는데 비해, 전자는 평범한 평양 총각 처녀들의 결혼이야기로써 ‘일상성’을 다뤘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 영화는 우선 북한의 ‘가족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북한은 1960년대의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의 시행으로 가족 중심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파괴와 함께 대가족 제도의 붕괴가 초래되었다. 또한 북한은 가정의 혁명화를 표방, 전래의 전통적 가정을 낡은 생활방식의 온상지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낡은 사상과 관습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가정을 ‘온 사회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의 기층생활단위’, ‘최저생산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학습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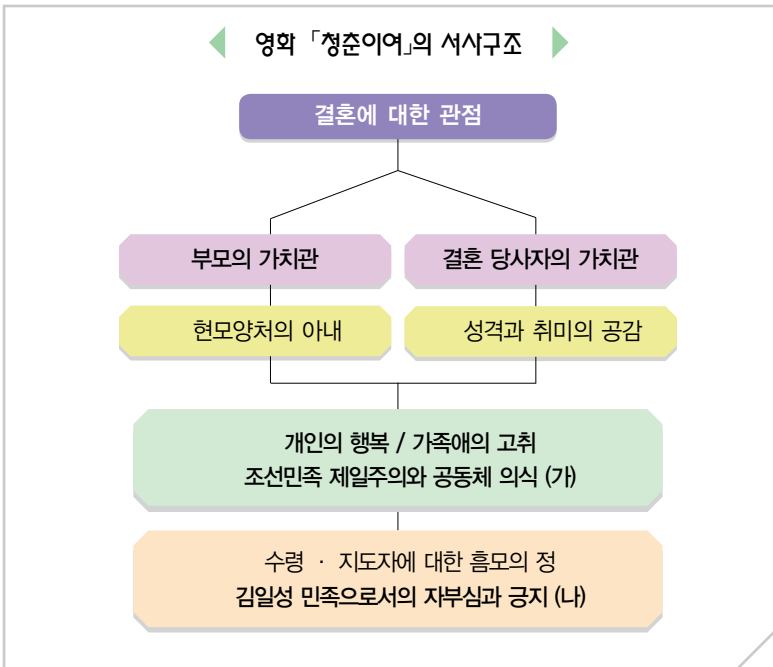
영화 「청춘이여」는 역사연구소 연구원인 총각 기호와 국가 대표 태권도선수인 은경의 결혼과정에서의 에피소드를 다룬 소극에 가까운 이야기이다. 하지만 훈훈한 가족애와 북한의 현대 도시생활을 사는 중산층의 개인주의 그리고 사적 영역의 행복 문제를 다룬 이야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의 시장경제와 러시아의 자유주의 물결이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의 영화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영화에서 기호의 다섯 여동생은 모두 운동선수이고 아버지도 체육기자로 나온다. 영화에서 며느릿감인 여주인공도 태권도 선수라서 안주인인 어머니의 반대에 직면한다는 내용이 가벼운 웃음을 유발한다. 북한의 고전적 예술영화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투쟁의 역사를 다루거나 김일성 신화를 예술적으로 상징·조작하기 위한 거대담론을 토대로 제작되었다면, 이 영화는 말



영화 「청춘이여」

그대로 평범한 평양시민의 일상이야기를 다룬 미시담론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청춘이여」에서 장남 한 명과 딸 다섯을 거느린, 집안의 어른인 체육기자 아버지와 공공관리소 부소장인 어머니는 좋은 며느릿감 문제를 놓고 계속 티격태격한다. 이 영화에서 집안에서의 발언권은 사실상 어머니가 쥐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선수 출신의 며느리를 인정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섯 딸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회적으로 협공해 나간다. 장남 기호는 역사연구소 연구원으로서 박사논문을 집필하기 위해 민속과 역사에 대해 연구를



해 나간다. 어느 날 우연히 인민대학습당에서 책을 빌리러 갔다가 미리 책을 빌려보고 있던 은경을 도서관 사서의 도움(은경이 한문 해독에 취약해서 도움자가 필요함)으로 만나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며 호감을 느끼게 된다. 한편 어머니는 은경을 수예연구소 연구원으로 오해하여 좋은 며느릿감으로 생각하지만, 도중에 그녀가 태권도 선수임을 알고는 극력 반대한다. 하지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은경이 우승을 차지하는 경기를 보면서 어머니는 조국을 위해 싸우는 은경의 늠름한 태도를 보고 태도를 바꾼다. 결혼문제와 가족애를 다룬 「청춘이여」의 서사구조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북한 영화가 (나)를 토대로 삼고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가)를 부각시킨 것이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화 「청춘이여」는 외면적 이미지로서 청춘거리나 태권도



「청춘이여」에 등장하는 부유한 가정의 내부

전당을 비롯한 스포츠종합경기장 단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많은 숨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평양의 현대적 아파트가 상징하는 도시인들의 개인주의와 소비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 이러한 열망은 1996년작 영화 「나의 아버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영화에서 은정 남매가 들어가 살게 된 새 보금자리인 아파트 내부는 패닝 촬영기법을 통해 자세히 묘사된다. TV세트, 냉장고, 가구 등 아파트 내부에 마련된 살림살이들은 북한의 남녀가 신혼에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오장육기의 품목이다. 이런 물품들을 전시하듯 보여주는 패닝 뒤에 감동해 말을 꺼내지 못하는 남매들의 모습이 보이고, 집을 구경 온 은정 고모의 감탄과 찬사가 이어지는데 그녀의 시선은 부러움이다. 사물에 대한 부러움과 사물을 물신화하는 이러한 시선은 소유의식의 등장과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⁵⁾

둘째,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의 가치관의 차이를 통해 공적인 영역의 가치와 사적인 영역의 가치의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 즉 남성성을 과시하려는 평범한 노총각 기호는 장남으로서 자신의 배필감으로 성격이 맞고 고상하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성을 선호하면서 사적인 영역의 기대감을 내비치지만, 은경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로

5) 이명자, 「북한영화와 근대성」, 역락, 2005

서 국가와 당 제일주의 그리고 지도자 결사옹위주의라는 공적인
담론을 앞세운다.

셋째, 고전적 혁명영화들이 보여주던 비극적 숭고미의 눈물이 아
니라, 현재의 일상을 비쳐주는 희극미를 토대로 한 예술영화라는 점
도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IV

계급교양 역사물과 일제 강점기 계몽가요 붐의 실상

1. 계급교양 역사물
2. 계몽기 대중가요의 인기와 '조선민족 제일주의'
3. 일제 강점기 계몽가요 보급과 민족성의 강조
4. '음악정치'의 의미와 정치적 기능

Ⅳ. 계급교양 역사물과 일제 강점기 계몽가요 붐의 실상

21세기 들어와서 북한 문화예술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 현상을 들라고 한다면 첫째, 계급교양 역사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과 일제 강점기 계몽가요를 대중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남한에서 북한에 넘겨준 비전향장기수를 활용한 장편소설이나 영화가 많이 창작되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앞의 두 가지는 김정일 정권이 들어선 이후 새롭게 부각된 ‘조선민족 제일주의’라는 민족주의 담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 담론은 두 가지 효용성이 있다. 하나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다. 그것은 다시 김정일 -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에도 큰 효용가치가 있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북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어다가는데 있어서 남북 대화를 지렛대로 활용하는데 좋은 담론이기 때문이다. 즉 남한으로부터 쌀과 비료 및 경제적 이득을 부담 없이 얻는데 민족주의 담론보다 더 좋은 담론이 없기 때문이다.

1. 계급교양 역사물

최근 북한에서 많이 창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계급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주제 문학이다.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줄 수 있으며 주체의 사관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역사주제의 작품들도 많이 창작할 것을 주문하였다. 1978년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1부와 2부)을 비롯하여 침략선 샤면호를 격침한 민중들의 투쟁을 반영한 「성벽에 비친 불길」, 삼포왜란을 취급한 「높새바람」(1부와 2부) 등 역사주제 소설 창작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87년에는 김정일이 역사주제 소설 창작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기본 방침을 직접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방침에서 그동안 취급하지 않았던 을지문덕·연개소문·강감찬·서희 등 애국명장들을 그린 역사물들을 창작할 것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 왕권 내부의 알력과 당파싸움을 비롯한 봉건 지배층 내부의 권력 쟁탈전을 현대성의 견지에서 취급할 것에 대한 문제, 고구려·신라·백제 통치배들의 전쟁을 고구려의 강대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취급할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역사자료를 작가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하고 과학적인 해명을 하였다고 북한 평론가 오승련은 「주체소설문학건설」(문예출판사, 1994)에서 강조하고 있다. 즉 이 방침은 북한 특유의 사실주의적 역사소설을 대량으로 창작할 것을 사실상 주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장편

소설 「높새바람」, 「이순신장군」, 「개화의 여명을 불러」 등의 장편소설과 「울릉도」 등의 중편소설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발행되어 북한에서 뿐만이 아니라 남한에서도 화제를 뿌렸던 「황진이」(2002)와 「군바바」(2005)는 소설 주제의 다양성을 시도한 작품이다. 「황진이」는 성적인 표현을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북한의 특성상 당국의 직접적 검열을 거치지 않고 발간될 수가 없다. 이처럼 성애를 표현하고 고려와 조선조 중엽 무렵의 역사 자료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장편으로 형상화한 배경에는 홍석중이라는 거물이 창작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미 그는 1510년의 삼포왜란을 배경으로 하여 왜구의 침략과 노략질 그리고 횡포, 조선조 봉건왕조의 양반사대부들의 근시안적인 대처와 비리 등에 대해 민중계층의 저항의 모습을 상세하게 다룬 「높새바람」 1부(1983)와 2부(1990) 창작으로 북한 문단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었다. 아울러 그는 북한 문단에서 이기영·한설야와 더불어 최고의 소설가로 손꼽히는 「임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의 손자이기도 하다.

또 하나 홍석중의 「황진이」(2002)가 북한 문단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킨 주요인은 작가의 창작적 개성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소설은 인물들의 성격과 장성과정이 생동하게 묘사되고 있다. 「황진이」의 스토리는 늬이와 진이의 사랑을 주축으로 삼으면

서 한편으로 하인 괴퐁이와 황진이의 몸종 이금이와의 사랑을 부선으로 장치하고 있다. 김홍섭은 「소설창작과 기교」에서 이 작품에서 놓이는 '산 인간'의 전형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세계의 위대성을 깊이 탐구하여 산 인간으로 형상하여야 감명 깊은 인정세계가 펼쳐지고 인간화다운 작품이 창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산 인간이 없으면 형상도 없게 되며 형상이 없으면 문학도 없게 된다고 역설한다.

사실 홍석중의 「황진이」는 표현의 섬세함이나 어휘의 풍부함 그리고 그 구사력에 있어서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하지만 북한 소설문학에서 어휘의 문제는 당국의 개입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북한문학이 백두산 3대장군을 중심으로 한 혁명전통 주제에 편중되거나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불멸의 향도' 총서 위주의 창작에 치중하는 데 따른 문학의 획일화·교조화 경향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홍석중의 소설에 등장하는 조선조 하층민들이 실제 사용한 일상어 중심의 풍부한 어휘는 북한 문학이 다양성의 문학으로 나아가는 데에 향도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해성의 「군바바」는 헤이그특사사건, 고종황제 퇴위, 순종의 즉위와 정미 7조약(1907.7)의 강제체결, 1907년 8월의 군대해산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수난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아 조선 군대의 한 군

관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자결성을 묘사한 역사 장편소설이다. 물론 이 작품은 북한 김정일이 역점을 두고 있는 ‘주체적 인간전형’과 ‘조선민족 제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문예관에 토대를 두고 주체적 미학원리에 근거하여 창작된 소설이다.



2007년 남한에서 출간된 소설 「군바바」

「군바바」는 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여 조선을 일제의 속국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본 통감부의 이토 히로부미 통감과 친일파 대신 이완용의 흥계를 깨닫고 조선 군대의 자존을 세우고 민족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신세대 군인들의 항일투쟁의 의병활동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1907년 말과 1908년 초 각지의 의병 부대는 연합하여 서울 침공작전을 기도하였다. 당시 강원도에서 활동한 관동 의병장 이인영은 서울로 진공하여 조선 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유리하게 해결한다는 계획에 따라 각지의 의병 부대를 양주에 집결시켰다. 이 때 양주에 모인 의병의 수는 강원도·충청도·경기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전라도 의병 등 총 1만 여 명에 이르렀다. 임진의병의 전통을 잇는 한말의병은 제국주의 열강의 지원과 비호를 받은 일제침략자에 대한 최대의 항일 민족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 중 한 갈래는 풍기광복단,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 등으로 이어져 1910년대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을 주도해 갔으며, 또 다른 갈래는 만주, 연해주로 망명하여 역시 해외에서의 무장독립운동의 기저가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항일 무장투쟁의 전통을 소위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혁명전통’으로 이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장편소설 「군바바」는 소설의 주인공인 남상덕을 핵으로 하여 보조인물들인 죽송이와 권기홍, 김희숙, 양설화, 이재홍 등의 인물을 씨줄과 날줄로 짜서 작품의 서사구조의 틀을 구성하였다. 작품 「군바바」에서 주인공 남상덕은 서구적 이론으로 분석한다면 ‘문제적 개인’에 해당하고, 북한의 문예이론에 적용한다면 ‘주체적 인간 전형’이다. 육군연상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조선군대의 소대장이라는 군관으로 임명된 남상덕은 권기홍과 더불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계속 갈등을 야기하는 인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군인으로서의 임무와 상관없는 권기홍의 누나인 권순실이 운영하는 술집 ‘청계천술집’과 일본인 요시꼬가 운영하는 ‘사꾸라 다방’과의 분쟁에 개입하여 감옥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다.

또 그는 군대 내에서의 일본조교들에 의한 폭력과 인간차별행위에 대해 용감하게 맞선다. 일본조교가 마굿간의 조선인 박좌수에 대해 폭행을 일삼지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자, 스스로 일본조교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군관회의에 회부된다. 그는 북한식 주체문예이론대로 ‘적대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남상덕은 양기탁의 국채보상운동에 감명 받아 조선군대 내에서 단연회를 꾸려 국채보상운동을 위한 의연금을 모금한다. 서구식 이론으로는 민족의식과 애국심의 발로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북한이론대로 한다면 스스로 자주성과 창조성을 확장시켜나가 결국 일제의 만행과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해나가는 과정을 세부 묘사한 것이라고 비평할 수 있다. 소설의 클라이맥스 대목에서 중대장 남상덕은 이완용 등이 황제의 어지를 조작하여 조선군대의 해산을 명한 것을 알고 애국심으로 가득 찬 대대장 박성환이 권총 자살한 장면을 확인하고 병사들 앞에 나가 “이제라도 군인의 사명감을 잊지 않으면 되는거요. 절대로 총을 놓아선 안 되오. 이 총은 왜놈들이 준 게 아니라 백성들이 준 것이고 나라가 준 것이요, 왜놈들이 놓으란다고 해서 우리가 이 총을 놓을 수 있는가?”라고 외치며 “왜놈들과 해봅시다! 사생결단으로 싸워봅시다”라고 열정적으로 말하면서 병사들과 함께 무장 항쟁에 나선다.⁶⁾

6) 김혜성, 「군바바」, 대훈, p.410 ~ 411, 2007

작품의 여러 곳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나서는 인민대중들의 함성과 참여열기가 드높은 것으로 묘사된다. 물론 그것을 이끌고 선동하는 인물은 주인공 남상덕이다. 작가는 남상덕이란 허구 인물을 내세우지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을 지향하기 위해 「군바바」에서 해산된 조선군대의 ‘의병 봉기 참여’라는 역사적 소재를 절묘하게 버무리고 있다. 작품에서 민중들의 항일 무장투쟁은 결국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투쟁을 떠올리게 하면서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 계몽기 대중가요의 인기와 ‘조선민족 제일주의’

1) ‘조선민족 제일주의’ 와 고유명절의 복원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국제정세의 급변은 북한 체제를 뒤흔들게 되고 국가 존립의 문제로까지 그 심각성이 확대된다. 특히 김정일의 후계구도의 확립과 더불어 대안 모색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제기된 것이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기치이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우월한 민족적 전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선전·홍보하기 위해 각 예술분야에서 민족적인 요소를 도입한 민족예술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 승계를 민족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함으로써 전통적 왕도정치 구현의 방편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 북한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이념적 구호는 1990년대 들어와서 북한 시문학 분야에서 민요의 발굴과 정리, 민족수난기 대중가요의 발굴과 정리 그리고 신민요의 창작으로 그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었다. 즉 북한 시문학 분야에서 민요와 계몽기 가요의 부상은 민족주의 담론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985년 공포된 명령⁷⁾에 따른 민족문화 유산 복원 사업으로 왕건릉의 복원, 동명왕릉의 개건, 단군 유적의 발굴과 복원 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1992년에 들어와서는 발해유적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조사 사업까지 전개된다. 미술분야에서의 조선화의 개척, 무용분야에서의 민속무용의 개발, 가극에서 평양교예단에 의한 새로운 형식의 민족가극 「춘향전」, 「박씨부인전」의 창작공연 등이 이어지게 되었다. 평양교예단의 레파토리에 민속놀이인 널뛰기, 밧줄타기, 말타기 등이 교예종목으로 변형되어 삽입되었다. 문학 분야에서 한설야·박팔양 등이 복권되었으며 한설야의 경우 애국열사릉에 안장된 모습이 확인되는 등 작가와 문학작품에 대한 과감한 해금은 19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이념체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 35호, 1985. 7. 11, <문화유적 보존관리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그 외에도 계몽기 대중가요(민족 수난기의 가요)의 연구와 보급, 일상복 입기 그리고 전통음식의 강조 등은 민족 전통문화의 되살리기 현상에 해당되는데, 북한 당국이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이러한 민족문화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 시대만 하더라도 구 소련의 스탈린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 운동의 국제주의에 경도되는 정책방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민요와 ‘아리랑 공연’

최창호는 「민요따라 삼천리」(1995년)의 서문에서 “민요는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적 재부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음악유산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전라도 민요는 왕년의 공훈배우인 신우선과 민족음악 교육가였던 조해숙의 가창을 참고로 하였으며 송만갑, 이동백, 정정렬, 임방울, 이회중선, 박록주 등이 음판에 남긴 가락들과 1940년에 출판된 정노식의 「조선창극사」도 참고로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최창호는 이 책에서 「아리랑」의 발생과 그 어원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역시 집단체조 아리랑대공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토대를 다지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인민배우 김진명의 구술에 따라 ‘이랑과 성부’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을 이룬다고 서술하고 있다. 대표적인 관련 설화로는

밀양의 「아랑각전설」과 「알영전설」, 「영남루전설」 등과 대원군의 경복궁 수축공사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먼저 밝힌다.

‘이랑과 성부’ 이야기는 조선조 중엽 한 마을에 김좌수라는 지주가 살았고 그 집안에 이랑이라는 총각과 성부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어느 해에 전래가 없는 가뭄이 닥쳐 식량난으로 아우성을 쳤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주는 이에 아랑곳없이 도조를 바치라고 하면서 농민들과 소작인들을 못살게 굴었다. 마름이 성과 없이 돌아오자 지주는 매 농기들에서 얼마 안 되는 종곡을 모조리 빼앗아냈다. 이에 격분한 농민들은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랑과 성부도 이 폭동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주의 고발을 들은 원은 폭동을 진압하려 관군의 출격명령을 내렸고 온 마을은 농민들의 시체와 피로 물들었다. 바로 이 유혈적인 참변에서 이랑과 성부는 다행하게도 관군의 추격에서 몸을 피하여 수락산이라고 하는 산속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 후 봉건관료배들과 지주들의 착취를 반대하여 농민들의 투쟁이 고을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자 이랑은 폭동군의 진압으로 억울하게 죽은 마을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줄 결심을 품고 싸움터를 향해 고개를 넘어갔는데 그때 성부가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별이 서글퍼서 즉흥적으로 부른 노래로 ‘아리랑’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온다는 것이다.

‘아리랑’이란 어원은 문자 그대로 사랑하는 나의 낭군님과 헤어

진다는 뜻에서 유래된 곡명이라고도 하며 성부의 남편인 이랑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고 설명하고 후설에 대해서도 구술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창호는 계속하여 〈아리랑〉이라고 하면 대체로 〈본조아리랑〉, 〈신조아리랑(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영천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해주아리랑〉, 〈서도아리랑〉을 비롯하여 〈열두아리랑〉에 ‘열두고개’라고 전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갖든 전설들도 각이하나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이 어렵다는 뜻에서 ‘아난리(我難離)’라고 부른 것이 오늘에 와서는 ‘아라리’로 되었다는 점과 고생의 한계를 넘기가 어렵다고 하여 ‘고계(苦界)’라고 부른 것을 오늘에 와서는 ‘고개’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아리랑의 전설들에서 일치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집대성된 아리랑과 민요채집은 2002년 김일성의 90회 생일을 맞아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에서 비로소 성대한 모습을 드러낸다. ‘아리랑 공연’은 2005년 두 번째 공연 이후에는 수해로 취소된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었다. 북한 당국이 ‘아리랑 공연’을 매년 개최하는 이유는 이 공연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다. 2011년에도 8월 1일 김정일은 후계자 김정은을 대동하고 아리랑 공연이 열리는 5·1 경기장을 찾았다. 아리랑 공연 기간에 북한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공연 관람을 유도하고 있으며, 관람



아리랑 공연 개막식(2011. 5. 1)

료는 1인당 800위안(한화 13만원가량)이다. 유럽이나 남한 관람객에게는 좀 더 비싼 입장료를 매긴다.

둘째는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된다. 매 공연에 약 2만 명 정도의 북한 인민들을 관람시킨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임시열차인 아리랑열차인 것이다. 아리랑열차를 활용하여 저 멀리 국경지방인 함경남도나 함경북도 그리고 자강도, 양강도 사람들도 관람을 시킨다. 그들은 기차역까지는 집단적으로 트럭을 타고 온다. 버스 등의 운송수단이 열악해서 그렇다. 기차역부터 평양역까지는 아리랑열차가 운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김정일은 소위 음악 통치, 예술 통치라는 정치적 전략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 ‘음악 통치’란 주민들의 정서에 쉽게 파고 들 수 있는 노래를 통해 사상교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예술 통치라는 것은 무용이나 혁명가극 등을 관람시켜 혁명정신을 고취시키고 증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술을 통해 인민들의 정서를 자극하여 지도자 김정일의 통치능력을 과시하고 인민들의 궁핍한 삶이 미래에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3. 일제 강점기 계몽가요 보급과 민족성의 강조

2005년 10월의 평양의 소년학생궁전에서 있었던 1,000여 명의 외국인 관객 대상의 예술 공연에서 북한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의 학생 100여 명이 부른 노래 중 신 민요와 동요도 있었지만, 「감격시대」라는 민족수난기의 대중가요도 포함이 되어 있어 최근 북한의 민족주의 담론이 어느 정도 대중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주었다. 이렇게 북한당국이 일제 강점기 계몽가요를 널리 보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격시대」 등의 노래에서는 「타향살이」 등의 신파조 노래와 달리 주권상실의 비애에서 머물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열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민족의 위대한 태양인 김일성 주석이 등장하기를 어둠 속에서 민중들이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일제 강점기 계몽가요를 적극 보급하는 이유도 중국에는 ‘수령형상’ 창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최창호는 「민족수난기의 대중가요들을 더듬어」(1997년)에서 홍란파의 「봉선화」 등의 예술가요, 민족수난기의 신민요, 「황성옛터」와 「타향살이」 등의 민족수난기의 대중가요들에 대한 문화적 비평과 자료 발굴을 동시에 시도하여 치밀하게 정리하였다.

최창호는 민족수난기의 대중가요는 사람들 속에서 널리 불려지면서 예술가요나 신 민요에 비해 그 노래의 수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중가요는 비가들의 비중이 높다고 하면서 그 예로 「황성옛터」, 「눈물 젖은 두만강」, 「진주라 천리길」, 「울며 헤진 부산항」, 「나그네 설움」 등의 작품들에는 겨레의 마음속에 흐르던 눈물과 그 울분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목포의 눈물」, 「칠석날」, 「애수의 소야곡」 등 연정을 담은 비가들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잃어진 고향」, 「타향살이」, 「연자방아」, 「고향설」, 「어머님 안심하소서」, 등을 비롯한 애향의 주제들도 있고, 비가에서 탈피해 보려고 시도한 「낙화류수」, 「피리소리」, 「꽃이 팝니다」, 「망향초 사랑」 「아주까리등불」을 비롯한 정서적인 작품들과 겨레의 힘찬 박동을 담아보려고 시도한 「감격시대」, 「바다의 고향시」 등과 같은 작품들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대중가요들은 ‘도식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민족의 애환을 담고 겨레의 마음 속에 반영되어 오면서 민족수난기의 기나긴 노정을 겨레와 함께 호흡하

여 온 옛 노래들이며 이를 통하여 그 시기의 물질들을 역력히 투시해 볼 수 있다'고 그 역사적 의미와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윤이상 음악 연구소에서 <조선음악명인전>을 펴내고, 「고향의 봄」, 「동무생각」 등 동요는 물론 「홍도야 울지 마라」, 「진주라 천리길」, 「타향살이」, 「봉선화」 등 일제 강점기의 대중음악을 연구하고 북한 민중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음악정치'의 의미와 정치적 기능

북한의 김정일은 현지도를 다니면서 각 음악, 예술단체의 공연도 관람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음악 정치, 예술 통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인민대중이 저마다 자주적인 음악예술을 창조, 실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음악 역시 사회주의 건설과 체제유지를 위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은 음악을 사상교양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일의 통치방식을 '음악 정치', '노래 정치'라고 부르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음악 정치'란 주민들의 정서에 쉽게 파고 들 수 있는 노래를 통해 사상교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기악곡보다는 가사를 통해 사상전달이 가능한 '성악'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평양음악무용대학' 등 음악교육기관을 졸업한 음악무

용인들은 ‘조선음악가동맹’에 가입하는 한편, 전문 예술단체에서 활동하게 된다. 여기에는 평양과 9개 지방 그리고 직할시에 걸쳐 음악관계 예술단이 조직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예술선전대’가 있다. 예술선전대의 기본 임무는 공장, 기업소, 농촌에 나가서 공연활동을 하며 경제선동을 하는 것이다. 도의 군중회관이 맡아보던 예술소조 활동도 ‘예술선전대’가 담당하며 그들을 지도하는 임무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문예소조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창작가와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980년도부터는 각 도 예술 선전대 종합공연을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김정일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하면서 주로 찾아보는 곳이 이들 각도 단위 ‘예술선전대의 종합공연’인 것이다.

‘예술선전대’는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손풍금(아코디온)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마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기가 이 손풍금일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예술선전대 말고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전문악단을 창설하여 악기의 개량화와 현대화를 도모하였다. 예를 들면 왕재경 경음악단, 보천보 전자악단 그리고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등이 있다. 여기에 소속된 가수들이 남한 식으로 표현하면, 소위 인기가수가 된다. 유명한 가수들로는 전해영, 이경숙 등과 보천보악단의 리드싱어 김광숙, 조청미 등이 있다.

예를 들면, 김정일과 후계자인 김정은이 함께 자강도예술단 예술인 공연을 관람했다고 대내용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이 2011년 4

월 7일 보도했다. 이러한 언론보도는 소위 북한식의 ‘예술통치’를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인 것이다. 자강도예술단은 김정은 찬양가인 합창 ‘발걸음’을 비롯해 합창 ‘수령님 한 품 속에 우리는 사네’,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일세’ 등을 무대에 펼쳤다고 전해졌다. 김정일은 이 자리에서 “자강도예술단은 지난 기간 혁명적인 예술 창조활동을 힘 있게 벌여 내 당원과 근로자들이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치하했다고 보도되었다.

‘발걸음’은 김정은의 후계자 지정과 관련된 노래로 2009년부터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노래이다. 김정일이 처음으로 ‘발걸음’을 감상한 것은 2009년 2월 인민군 제26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할 때인데, 당시 공연에서는 김정일이 지켜보는



‘발걸음’ 공연 장면

가운데 이 부대 선전대원들이 ‘발걸음’을 불렀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정일은 2009년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에 그를 후계자로 내정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김정은 찬양가요를 공식적인 공연관람 행사를 통해 들었고 북한 언론 매체가 이를 공식 보도함으로써 사실상 김정은 후계구축 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4 장 · 계급교양 역사물과 일제 강점기 계몽가요 붐의 실상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V

맺음말



최근 북한은 밖으로는 식량사정이 어려우니 지원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내부언론을 통해서도 강성대국이 도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홍보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북한의 문화예술 작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영화와 소설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진 북한사회의 표면적인 이미지는 주체사상과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무장한 강성대국 시민으로서의 힘찬 목소리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굶주림 속에서 수십 년째 지속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의 어려움과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지치고 고단한 삶의 모습이 일관되게 드러난다. 그 와중에 세대간·도농간 갈등도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당 관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한편으로는 경제난 이후 시장을 통해 자본주의를 경험하면서 생긴 소비에 대한 욕망과 개인주의적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여전히 예술을 통해 지도자 김정일의 통치능력을 과시하고 인민들의 궁핍한 삶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희생적인 노동력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 주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수령의 태양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릇의 따뜻한 밥과 생필품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적인 삶의 자유와 일상적인 행복감이 뒤따르기를 고대하고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목록

-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 03 먹거리를 통해본 북한 현실
-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 06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이해
- 07 남북한의 역사 인식 비교
-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었나?
-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
-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 12 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 14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 15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그 실태
-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 18 북한의 의료실태
-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 21 북한의 체육실태
- 22 북한 문화재 실태
- 23 북한의 대남전략
- 24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 26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 27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 28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30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비매품>

발행일 2011년 11월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122-887,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인수동) 전화 02)902-7161~7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편집/인쇄 맑은인쇄 전화 02)2265-7896

“ 문화예술이라는 거울을 통해 본 북한사회의 표면적인 이미지는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강성대국 시민으로서의 힘찬 목소리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지치고 고단한 북한 주민의 삶의 모습이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

발 간 등 록 번 호

11-1250054-000093-14